서울시-국토부, 집값 안정화 '총력'

주택정책협의회서 협력과제 논의
특별시장 변경 계획 수립방안 검토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물량 확대
공공주택사업 절차 간소화 요청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비 사업 촉진과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주택정책협의회에서 국토부와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이행 계획과 정책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시는 국토부에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현행 법령에서 특별시장은 직접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수 있다. 입안 권한이 자치구로 한정돼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시의 건의에, 국토부는 특별시장이 변경 계획을 수립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시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물량 확대 방안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을 국토부와 논의했다.

예컨대 다세대·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살면서 출산을 했다면, 이들을 장기전세주택Ⅱ로 연계해 이사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간 더 거주 가능하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다세대·다가구 등)에서 장기전세주택Ⅱ(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투자 심사 제외 등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저층 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비 지원, 자율주택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면적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 약정 방식 개선 등도 건의했다.

이외에도 ▲신축매입임대 공급확대 ▲정비사업 임대주택 기여 축소(보정계수 적용) 시행 ▲노후 청사 등 복합개발 대상지 발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협조 등을 논의했다고 시는 전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양질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선발한 70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포함해 총 437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26일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총 413곳에 배치한다. /유토이미지(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서울 초·중학교, 원어민 교사 437명 배치

오는 2학기부터 관내 413곳서 활동

서울지역 388개 초·중학교에 437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오는 2학기에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선발한 70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포함해 총 437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26일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총 413곳에 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사들은 초등학교 희망교 전체인 388개교를 비롯해 25개 중학교에서 활동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영어 공교육 강화 지원 방안 일환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초등학교 영어 공교육 시작 단계에서의 영어 교육격차 문제 해소 및 사교육 경감 방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신규 선발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국립국제교육원(EPIK)이 주관하는 7박 8일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오리엔테이션 진행 후 근무학교로 이동한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사전 통장 개설 신청을 지원한다.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 및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연수도 실시한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희망하는 모든 공립 초등학교에 1명씩 배치하며, 3학년 이상 30학급 이상의 '과대학교' 14개교에는 2명 배치한다. 과대학교는 지난 학기보다 2개교가 늘었다. /이현진 기자

중앙대, 청색인광 OLED 수명향상 원리 규명

p-n형 쌍극자 호스트 정공이동 용이 시
결합속도 개선 돼 소자 열화 저감
청색소자 메커니즘 전환 기대 모아

이경형 성균관대 박사과정

김재민 중앙대 교수

이준엽 성균관대 교수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김재민 첨단소재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청색 인광 OLED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수명 향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데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OLED 업계의 화두 중 하나는 청색 소자의 발광 메커니즘을 형광 발광에서 인광 발광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광 발광체를 도입하면 일중항과 삼중항 여기자를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돼 이론 최대 효율을 30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이 때문에 발광휘도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손꼽힌다.

청색 인광 소자를 상용화하기 어려운 이유는 소자의 수명이 짧다는 점이다. OLED는 소자 열화가 되면 휘도가 감소하고 전력 소모가 증가한다. 청색 인광 소자의 경우 일중항 여기자보다 삼중항 여기자로 인한 소자 열화가 더 가속화될뿐더러 청색의 광자 에너지가 커 소자의 수명이 짧다.

기존 연구들은 소자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p형 호스트와 p-n형 쌍극자 호스트를 공동호스트로 사용하는 방법을 썼다. 그 결과 소자의 수명은 향상됐지만, n형 호스트 대신 p-n형 호스트를 사용하여 수명이 향상되는 원리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었다.

김재민 교수팀은 다양한 실험적 분석과 물리 기반 모델링을 통해 p-n형 쌍극자 호스트에서 폴라론과 여기자 거동을 바탕으로 소자 열화가 지연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광범위한 전기광학적 분석 결과 p-n형 쌍극자 호스트로 정공 이동이 용이해지면서 재결합속도가 개선되고 여기자-폴라론 열화가 저감된다는 것을 밝혔다. 기존 연구에서는 p-n형 쌍극자 호스트의 전기화학적 안정성이 논의됐지만 연구 결과 주요한 인자가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청색 인광 OLED의 소자 수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것은 물론 열화 현상에 대한 분석법도 정립했다. 별다른 제약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발견한 것이기에 청색 소자의 메커니즘 전환을 위한 원천 기술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를 모은다.

이번 연구는 김재민 교수 연구팀과 이준엽 성균관대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이현진 기자 lhj@

용인시, 수출상담회서 60억 계약 추진

용인특례시 Y-Trade 수출상담회

용인특례시는 지난 21일 기흥구 고매동 GA코리아 훼미리콘도에서 열린 해외바이어 초청 '2024 용인특례시 Y-Trade 수출상담회'를 통해 444만달러(약 60억원)의 계약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상담회에선 183건 1500만달러(약 206억원) 상당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회에는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등 16개국 32개 사 바이어와 용인특례시 우수 중소기업 53곳이 참여했다.

참여기업 중 에센스 마스크를 생산하는 '지엔티파마', 세탁세제 생산기업인 '에이치비글로벌', 헤어 제품 생산 판매 기업인 '복스하우스', 기능성 앰플과 미스트를 생산·판매하는 '플라스티코스', 아이라이너를 생산하는 '메이투' 등 5개사가 현장에서 해외 바이어와 총 126만달러(약 17억원) 규모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특히 일본 최대 기프트 온라인 몰 (Giftmall Inc.) 관계자가 한국 기업의 제품 수입 확대를 희망하며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본 유통망에 입점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열어 많은 기업들의 눈길을 끌었다. /용인(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서울시 공무원, 지난해 128억 예산 절감

예산성과금으로 6700만원 지급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난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아낀 예산이 128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절감액의 약 0.5%를 성과금으로 지급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예산성과금 제도를 통해 128억2334만9000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성과금제는 세입 증대와 예산 절약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 성과를 토대로, 올 4월 총 16건에 대한 예산성과금(670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 이는 전체 예산 절감액과 세입 증대액의 0.5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작년 세입 증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례는 '구리석유비축기지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 승소'였다. 시는 구리석유비축기지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간접 증거를 확보, 잦은 행정구역 변경 등 구체적인 상황 설명 노력을 통해 2심과 3심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토지 소유권과 대부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는 이를 통해 56억4810만9000원의 세입 증대 실적을 올려 5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재무국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심의회 가격 사정 개선을 통한 수입 증대'로 2번째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재산관리과는 최근 3년간 공개 입찰로 매각된 시유 재산을 낙찰가액을 고려한 가격 사정률을 산출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입 확충을 도모, 14억4681만원을 확보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뜸 / 05:57 | 해짐 / 19:10

8월 26일(月)
음력 : 7월 23일

수도권 날씨 25~31℃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티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백악관 "바이든, 상황 긴밀 주시…이 자위권 지지"
▲ 미 서부 지역, 폭염·산불에 때아닌 폭설까지… 기후재앙 극치 /사진 뉴시스

▲ IS, 사상자 11명 獨 졸링겐 흉기난동 자기들 소행이라 주장
▲ 구조물 충돌하자 화염… 중국서도 전기차 화재

▲ "남성 체취 불쾌해" 女아나운서, 지적했다 해고… 日 성차별 논란 /사진 뉴시스
▲ 日, 돌고래 주의보… 해변서 지금까지 47명 공격 당해